

2021-16호



편견과 고정관념을 극복한 직업인들



진로돋보기

편견과 고정관념을 극복한 직업인들

직업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도 물러서지 않고,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 유명인들을 살펴보며 우리 자녀가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관을 지닐 수 있도록 안내해 봅시다.



육상선수 임춘애

한국 여자 선수 최초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같은 대회에서 3관왕을 달성한 유일한 선수

세 차례나 비공식적으로 성별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육상같이 전통적으로 남성의 운동으로 지목된 종목들에서 뛰어난 여자선수들에 대한 의심을 받은 거죠. 800m에서 우승한 이후 주변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경기를 하는 도중에 성별 검사를 받았죠, 그래도 끗끗이 경기에 임했고, 결국 다음 경기에서 우승을 했어요.



피아니스트 이희아

선천적인 신체장애로 네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며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피아니스트

피아노를 처음 배우려고 학원을 찾아 다녔을 때도, 학원 선생님이 제 손가락을 보자마자 피아노를 배울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피아노 스승님을 만나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 피아노를 배울 당시 건반소리를 내는 데만 3개월이 걸릴 정도였어요. 하지만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한 끝에 마침내 전국 장애인예술대회에서 입상했고, 피아니스트로 성공적인 데뷔를 마쳤어요.



수학자 캐서린 존슨

미국 최초의 유인 우주비행·유인
달 탐사 성공에 기여한 수학자

저는 흑인이면서 동시에 여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핵심 정보를 가린 업무만을 배정받을 수 있었어요. 또 유색 인종용 커피포트를 따로 써야 했고, ‘유색인종 화장실’을 가기 위해 매일 왕복 800m 거리를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석기하학을 적용한 저만의 풀이 방식으로 주요 우주선의 비행 경로를 계산했어요. 초기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저는 대체불가능한 사람이 됐고, 유색인종 화장실이 사라지고 여성이 펜타곤 보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죠.



가수 스티비 원더

작사와 작곡뿐만 아니라 노래와
악기 연주에 능숙하며, 30개 이상의
히트곡과 25번의 그래미상을 수상한
살아있는 전설로 평가받는 가수

저는 미숙아로 태어나 시력을 잃었어요. 아무도 시각장애를 가진 제가 가수, 악기를 다루는 연주가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죠. 초등학교 시절 교실에 쥐가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 수업을 진행하던 선생님이 저에게 쥐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앞을 볼 수 없다고 반문했는데, 선생님은 제게 “너는 앞을 볼 수 없지만 누구보다 뛰어난 귀를 가졌단다.”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그 이후로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워 가게 됐죠.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없었기에 더 발달된 청각을 토대로 음악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축구선수 마누에우 프란시스쿠 두스 산투스

여러 슈퍼스타를 배출한
브라질 축구계에서도 항상
맨 처음에 거론되는, 자타가 공인하는
역대 최고의 드리블러

저는 소아마비에, 가난하고 유아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척추는 S자로 휘고, 두 다리는 한쪽으로 휘었어요. 의사들은 그런 저를 보고 제가 운동선수가 될 수 없다는 진단을 내렸어요. 그러나 저는 1955년 처음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팀에 뽑힌 뒤로 1966년까지 A매치 50경기에 12골을 기록했어요. 승률은 86%였죠. 장애 때문에 드리블 자세나 리듬이 다른 선수들과 미묘하게 달라서 상대 수비수들이 무척 혼란스러워 했어요. 장애를 극복한 것을 뛰어넘어 장애를 역이용해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었습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 www.parents.go.kr

드림래터

편견을 극복한 직업인을 찾아 가상인터뷰를 해보요!

앞서 살펴본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간 직업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극복한 직업인을 찾아보고, 이를 참고하여 자녀가 원하는 진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편견 극복 직업인 가상 인터뷰 작성하기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극복한 직업인을 찾아봅니다. 해당 직업 관련하여 ‘커리어넷 > 직업정보’를 참고해 <직업 정보> 칸과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 칸을 채웁니다. 영상과 기사를 더 찾아본 후, 직업인과 3개 문항으로 질의-답변을 이어나가는 가상 인터뷰를 <극복 스토리> 칸에 작성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가상 인터뷰 작성 소감을 정리해 봅니다.



진로 클릭

직업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살펴보기

커리어넷에서 소개하는 직업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는 11가지가 있습니다. 직업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까지 알아봅시다.

출처: 커리어넷(www.career.go.kr)

> 진로동영상> 직업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편견과 고정관념을 극복한 직업인

ex) 시각장애인 최초로 교사가 된 김00 씨

직업 정보

ex) 인문계중등학교교사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이므로 교육자로서 투철한 사명의식과 책임감이 필요하며, 교육과 학생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요구된다



*커리어넷(www.career.go.kr) > 직업정보
참고해 작성 가능합니다.



출처: 커리어넷(www.career.go.kr) > 직업정보

극복 스토리

Q1

ex) 교사가 된 후 시각장애로 인해 불편한 점은 없나요?

Q2

ex)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Q3

ex)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며 보람있었던 적이 있나요?

Q4

ex) 학생들이 시각장애인 교사인 저를 위해서 학교를 오는 길에 점자 유도 블록이 없다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선생님에게 준 학생들의 선물이죠. 학생들의 힘으로 변한 현장은 또 다른 교육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만든 변화로 제가 놀랐고 학생들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편견과 고정관념

ex) 시각장애가 있어서 교사의 업무수행능력 중요도에 포함되는 능력들이 부족하니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작성 후 느낀점

ex)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눈으로 잘 보고 관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아니라 마음으로 학생들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사는 비장애인인어야 된다는 직업 편견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참고: 유튜브(www.youtube.com) > 연합뉴스TV

> [미니다큐] 오늘 - 248회 : 편견을 극복한 시각장애인 선생님

